



**2016년 01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기부금 영수증 발송**

- 날 짜 : 2016.01.08.(金) 예정
- 내 용 : 지난 한해 연구원을 위해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평가회의**

- 날 짜 : 2015.12.28.(月)
- 내 용 : 매주 정기적으로 열렸던 사무국 실무자 주간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2016년도 사업 계획수립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원 부서 개편과 관련하여, 2016년도부터는 현 1국 2실(행정, 연구)에서 1국 3실(행정, 연구, 자료)로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 단행본 제출**



- 내 용 :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제작된 단행본이 완성되었습니다. 향후 발표자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우편발송 및 인편발송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사업 주관기관인 정읍시청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 ○ 전라감영 및 구 도청사 백서 제작사업 완료보고

- 날 짜 : 2015.12.29.(火)

- 내 용 : 2015년 전주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전라감영 및 구 도청사 백서 제작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보고서와 약식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백서 완성본과 정산보완서류를 갖추어 사업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 ■ 연구원 회원 소식

### ○ 고정수 회원 아들 혼인

- 연구원 고정수 회원 아들의 혼인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01.09.(土) 오후 2시 30분

• 장소 : 부산 목화웨딩컨벤션 15층 베일리홀

※ 당일 오전 10시, 전주종합경기장 북문(벽계가든 맞은편)에서 버스 출발 예정입니다.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1월 04일(월) : 주간회의

○ 01월 05일(화) : 운영위원회. 이사회 일정 확인 및 준비

○ 01월 06일(수) : 외부사업 정산 보완

○ 01월 08일(금) : 기부금 영수증 발송

## ■ 역사속의 오늘

### ○ 그대 떠나 보낸 지 20년... - 1996년 1월 6일

: 작년 이맘 때 뉴스레터에서 김광석 기일을 " 더할 나위없다"고만 기록했다. 20년이다. 그를 떠나 보낸 지... 오늘은 그에 대한 소회를 더듬어 본다.

돌이켜보면 그의 시작은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1988 세대에게 청아한 목소리로 역사의 험로를 안내해주던 노릇돌이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노래했고 "기나 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을 통해 폭정의 세월을 견딜 힘을 나눠주었고 "빈 손 가득히 움켜 쥔 햇살에 살아... 너희 나를 육시토록 살아"를 외치게 만든 힘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서정성 짙은 사람의 노래를 부르던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진다.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던 <사랑했지만>을 그는 그리 즐겨 부르지 않았다 한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지만>을 오히려 더 열심히 부르기로 결심하는 일이 생긴다. 그의 콘서트 실황 중계로 여전히 기록된 그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며칠 전,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에 참가하신 칠순 할머니께서 24년생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비 오는 어느 날 우산도 없이 장보고 오는 길에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내리는 비도 잊은 채 서서 들으셨답니다. <사랑했지만>이라고 하시더군요. 감정은 나이와는 상관없다고들 하면서도, 할머니나 부모님께서도 날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무의식 중에 단정짓고 잘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지요.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그 할머니의 잊었던 감정을 되살려준 노래이기에 조금 더 열심히 부르고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이처럼 친절하 사람이었다. 김광석은...

김광석 노래의 힘은 듣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노래의 생명을 빌리고 그것으로 다시 그들을 위무했던 친절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콘서트에서도 항상 대화하기를 즐겼다. 말을 걸고, 농담을 하고 청중들과 호흡하면서 노래와 노래 사이를 이어나갔다.

사람으로 태어나 전설로 남은 이들의 숭한 무용담이 전해지는 시대에서 사람으로 여전히 기억되는 전설 같은 이의 이름을 불러본다.

김 광 석...

그곳은 어찌 따쉴습니까.....

## ○ 세월호의 시작 - 1953년 1월 9일

: 영호남을 이어주는 교통편은 오랫동안 불편했다. 지금은 그나마 고속도로들이 이어져 있지만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 영호남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편은 해상 교통이었다. 그리고 그 물길은 부산항에 이르기 전 다대포 앞바다를 통과한다. 다대포 앞바다는 유난히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3년 1월 9일 밤 일어났다.

1월 9일 오후 두 시 창경호라는 이름의 배가 여수항을 떠났다. 전쟁 중이라지만 그래도 설은 쇠야 했기에 임시수도 부산으로 향하는 창경호에는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난 쌀 450가마와 수산물 50가마가 배에 가득히 실렸다. 다도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통영항에 입항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인 6시경.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경호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구정 대목을 노려 부산에 가서 물건을 떼 오려는 상인들이었다. 그렇게 올라탄 사람이 수백 명.

원래 일본 화물선 천신환이었던 창경호는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것을 대충 고쳐서 다시 바다에 띄운 허약한 배였다. 만들어진 지는 20년이 지났고 배 자체도 불안정했다. 여기에 쌀 수백 가마와 정원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찬 것이다. 1월 9일 그렇지 않아도 파도가 드높은 겨울 바다였다. 통영을 떠나 부산의 목전인 다대포 앞바다에 이른 창경호에는 연신 파도가 부딪혀 공포스런 포말로 부서졌다. 흡사 피난선처럼 사람들이 들어찬 창경호 곳곳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고 파도를 걱정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던 중 커다란 파도가 창경호의 옆구리를 들이쳤고 순식간에 배는 중심을 잃고 기울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다른 파도가 배를 때렸고 창경호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곤두박질쳐 들어가고 말았다.

공식적으로 그 배에 탄 사람은 236명이었지만 실상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236명 사망자 가운데 229명이 엄동설한 겨울 바다의 원혼이 됐다. 생존자는 단 7명. 창경호에는 구명장비가 전혀 없었다. 구명장비는 '도난'을 우려해서 배가 아니라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장비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홀히 한 댓가를 창경호는 처절하게 치르고 말았다. 여기에 교통부 장관이란 이의 망언이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창경호 사건은 풍랑 탓"이라며 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사고로 규정했던 것이다. 후에 밝혀진 일이라면 그는 창경호 선주와 인척 관계였다. 여객선 개조, 정원 초과, 안전 장비 미비 등 모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불법이었던 창경호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교통부 장관은 분노한 국민들 앞에 사표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창경호 침몰은 탐욕을 부리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보였지만 창경호의 마(魔)는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1967년 진해 가덕도 앞바다에서 역시 여수와 부산을 오가던 여객선 한일호가 구축함 충남함에 부딪쳐 침몰하여 90명이 넘는 이들이 떴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배의 엔진은 바로 14년 전 침몰한 창경호의 엔진이었던 것이다. 인양한 배에서 엔진을 떼 내어 자기 배에 달고 운항하던 한일호 역시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를 점검해야 할 공무원도 사바사바에 눈을 감았으며 결국 그 많은 생명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말았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은 이렇듯 장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몰염치함을 증명한다. 엄중한 반성과 서릿발 같은 진상규명은 침몰과 함께 수장 시켜버리고 순간의 모면에 집중해온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더 큰 포한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두렵기만 하다.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악습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기에 바다 위에서 살려달라 악을 쓰다가 물 속으로 사라져간 이들의 혼은 어찌 달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국가와 권력, 자본 앞에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의 명복을 빈다.

부디 편히 쉬소서...